

# PC에 발목 잡힌 SK하이닉스... '프리미엄 D램' 구원투수 낸다

PC용 D램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해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수요가 증가하는 차세대 DDR4와 LPDDR4 D램을 비롯해 서버·모바일용 D램 비중을 늘려 성장을 도모한다.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지난 2분기 매출 4조6390억원, 영업이익 1조3750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 27% 늘었지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4%, -13%다.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은 PC용 D램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고 수요도 줄었기 때문이다. PC용 D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일부 서버와 컨슈머 시장에 영향을 미쳐 출하량은 4% 늘었지만 전체 D램 평균판매가격(ASP)이 8%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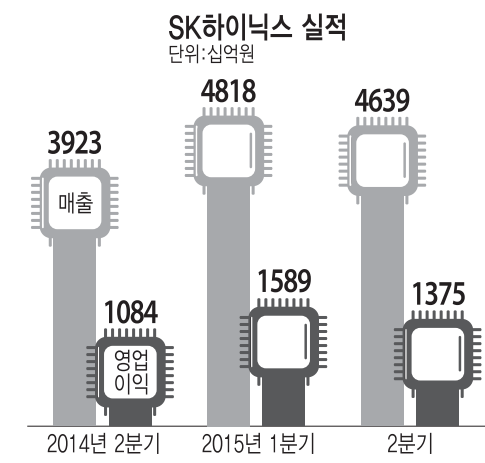
D램 출하량이 증가한 것은 모바일용과 서버용 D램이 효과 역할을 했다. 낸드플래시는 전 분기 대비 출하량이 8% 늘고 ASP는 6% 줄어드는 데

2분기 매출 4조6390억...4% 줄어  
PC용 D램 가격 하락에 수요 감소

서버·모바일용 비중 키우고  
DDR4·LPDDR4 생산량 확대

전 분기 수준 가격을 유지했다. 낸드와 모바일 D램을 적용한 멀티칩패키지(MCP)는 중국 계절적 수요 증가와 대용량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체 매출 14%를 차지하고 분기 최대 판매치를 기록하는 기록을 세웠다.

SK하이닉스는 연말에 PC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텔 '스카이레이크'와 MS '윈도10' 출시 효과가 전체 PC 수요를 회복시킬



정도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는 차세대 DDR4와 모바일용 LPDDR4, 서버용 32GB 대용량 D램 모듈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서버용 D램이 대용량화되고 모바일 D램은

LPDDR4를 중심으로 중고가 폰에 채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 견조한 수요 증가를 예상했다.

3분기 D램 출하량은 10% 증가하고 모바일 D램 비중은 기존 30%에서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에 PC D램 비중은 2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DDR3 생산 비중도 줄인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 대용량 낸드를 탑재하는 비중이 커지고 임베디드 멀티칩 패키지(eMCP) 수요가 증가해 출하량이 10% 중반대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박래학 SK하이닉스 D램마케팅그룹장(상무)은 "SK하이닉스 LPDDR4와 DDR4 공급이 시장 대비 개발 속도가 빠르고 공급량도 앞서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초부터 신축한 M14 라인에서 20나노 초반(22)대 DDR4와 LPDDR4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분기부터 생산한 16나노미터(nm) 트리

플레벨셀(TLC) 낸드는 연말까지 40%로 생산 비중을 확대한다. 3차원(3D) 2세대(36단) 128Gb 멀티레벨셀(MLC)은 3분기에 개발을 마치고 연내 소규모 양산을 시작한다.

곧이어 3세대(48단) TLC 낸드도 연말까지 개발을 마치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와 낸드 기반 솔루션 전반으로 확대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명 사고로 공사기한이 길어진 M14 라인은 연말까지 장비 반입을 마치고 시험 가동에 돌입한다. 두 달가량 지연돼 D램 웨이퍼 생산이 당초 예상한 월 1만3000장 수준에서 7000~8000장이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영 재무본부장(상무)은 "M14 완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M10 생산을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M14 생산량을 일정 수준 확보해야 새로운 사용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옥진기자 withok@etnews.com**

## LGD '6세대 플렉시블 OLED 라인' 1조500억 투자

경북 구미에 월 7500장 생산 규모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공략 발판

LGD디스플레이가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선도를 위해 1조500억원 규모 6세대(1500×1850mm) 신규라인(E5) 투자를 결정했다.

E5 라인에는 경북 구미 공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 규모는 원장기판 투입기준 월 7500장이다. 2017년 상반기 양산이 목표다.

6세대 라인에서는 원장기판 한 장에서 5.5인치 제품을 200개 넘게 생산할 수 있다. 기존 4.5세대 라인(730×920mm) 대비 생산효율이 4배 이상 증가한다.

LGD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날 구미공장 '고객가치창조'에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을 비롯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신규 투자와 행정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LGD디스플레이는 2008년부터 3년간 3조7000억원을 투자해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집적화에 주력했다. 2012년부터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기술력 강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1995년 P1 공장이 가동한 이래 구미사



23일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고객가치창조'에서 열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 심학봉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태환 국회의원, 권동섭 LG디스플레이 노조위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했다.

업장에 약 14조원 이상 투자를 해왔다.

LGD디스플레이는 6세대 플렉시블 OLED 투자로 미래 신시장으로 각광받는 폴더블(Foldable) 디스플레이와 대화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와 같은 미래 성장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LGD디스플레이 관계자는 "6세대 크기 대면적 생산체제 구축으로 플렉시블 OLED 경쟁력 강화 및 본격적인 사업 전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플렉시블 OLED만이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별화

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6조7076억원, 영업이익 488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 각각 4%, 34%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기보다는 각각 12%, 199% 증가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트업체 구매 조정에도 불구하고 TV 대면적 트렌드가 지속되고 AIT 기반 중소형 제품 고객 확대 덕분에 13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정재훈·성현희기자 jhoon@etnews.com**

## "삼성, 1000억 기부해 공익법인 설립"

반도체 직업병 조정위 권고...생산라인 공개 기술 누출 우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사회공헌금 1000억원 기부를 23일 제안했다. 별도 공익법인을 설립해 기부금으로 피해 근로자를 개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가 추천한 공익법인 대상자로는 친노동계 성향 단체가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반도체 생산라인과 화학물질은 공익법인에 무작위로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핵심 기술 누출도 우려된다. 해당 권고안은 양측에서 10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23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가 피해 노동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조정위, 공익법인 설립하라

조정위는 삼성전자에 기부금 1000억원을 내고 피해를 피해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집행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이 속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소정의 사회기부금을 내고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법인 참여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실련, 참여연대, 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를 추천했다.

조정위는 보상대상자 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해 최소 1년 이상 재직할 종사자로 정했다. 질환범위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생식질환(불임, 유산), 차세대 질환(선천성 기형, 소아암),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 등 12가지로 해석했다. 이를 1~3군으로 나눠 최소 근무기간 1년, 최대 잠복기간 14년에 속하는 대상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망자 유족에게

는 1000일분의 평균 임금 상당액을 별도 위로보 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포함했다.

◇반도체 화학물질 수시로 공개하라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내 3명 이상 음모자만이 이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삼성전자가 제안한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보다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셈이다. 조정위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제품을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 조사하고 중대한 유해 요인이 포함됐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내부 보건관리팀이 수행토록 제시했다.

공유정보 반출금 간사는 "당초 조정위가 목표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이 상당히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구체적으로 권고안을 살핀 뒤 기간 내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라인·원부자재 기밀 핵심기술 누출 우려  
이 같은 권고안은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 핵심인 각종 원재료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영업비밀 누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익법인에 반도체 생산라인 및 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는 생산라인 및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원부자재 등을 철저히 기밀로 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 일부 항목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권고안 핵심 중 하나인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추천단체에 친노동계 성향 단체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산업계 입장을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은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옥진기자 withok@etnews.com**

## 아드반테스트, 스마트폰 배터리 테스트 솔루션 선봬

아드반테스트(대표 구로에 신이치로)는 자회사 W2BI와 카사이트테크놀로지사가 스마트폰용 배터리 수명 테스트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무선 장치 테스트용 SW 개발업체인 W2BI가

측정용 SW를 개발하고 카사이트 장비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카사이트 UXM 무선 테스트 장비와 N6705B 직류(DC) 전력 분석기를 사용한다. 북미무선통신사업자협회(CTIA) 배터리 수명 테스트 플랜

테스트 항목이 늘어나는 데 따라왔다.

새 솔루션은 실제 최종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다. 배터리 테스트 방식이 일관적이고 효율적이다.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 No.1 Filter DB 암호화, 디가드(D'Guard) DGUARD

세계최초의 Filter DB 암호화 방식으로 성능보장 및 적용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



www.inebsoft.com

